

실질적 일자리 1만2000개...판매 지속가능 관건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물 탄생

<2> 파급 효과와 향후 과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M)는 공장 착공 당시부터 이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이 현대차의 1000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고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탄생한 기업인 만큼 지역민들은 향후 고용 창출 효과와 협력 업체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퉈 벤치마킹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통한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가시화=GM의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은 가시화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우선 공장 착공에 따른 건설·설비 인력 45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GM은 설립과 동시에 올해 경력과 신입 사원 539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365명이 신입사원이다. 전체 채용 인원 중 광주·전남 지역민은 92.4%(광주 83.5%·전남 8.9%)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22.1%에 달하고, 전문대 졸업 47.5%, 대학 졸업자는 29.5%였다. GM은 공장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내년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GM의 직접 고

광주·전남 청년 유출 줄어든 듯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지자체들 '상생 일자리' 벤치마킹 전국 제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GM, 인지도·기술력 높여야

용에 따른 정규직 인원은 내년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M협력사 등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만 2000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광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광주 순유출 인구 중 청년 비중이 86%에 달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GM의 설립은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의 순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광주의 최대 주력산업 중 하나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인해 지난 2017년 기준 광주 자동차산업 매출액은 광주시 제조업 매출액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기업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수출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GM이 설립됐고, 광주시는 국내 최초 2개 이상의 완성차 생산기업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2개의 완성차 공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생산 부품 조달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부품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M이 들어선 광주빛그린산단에는 민선 7기들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 무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실용화 사업 등 자동차산업 일관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GM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달 15일부터 현대차의 1000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 공장 내부 시설.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원과 경남, 광주, 구미, 군산, 울산, 익산, 전남, 충주 등 9개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은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 구미는 전기차 2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 강원은 초소형 전기차 완성차 사업, 울산은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잠재된 각 산업분야의 제도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전기차 등 미래

형 자동차 산업 분야에만 집중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과 중복 사업 투자 등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과제=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GM에서 첫 생산된 캐스퍼의 판매 실적이다. 첫 양산차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경우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GM의 기술력 또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첫 차 양산부터 연간 10만대 생산이라는 목표가 좌초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GM이 세계 다양한 브랜드의 차종을 위

탁 생산할 수 있는 인지도와 기술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GM 생산라인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을 갖춰 시설 일부 조정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 체제로의 빠른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형일자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노사민정 대화협을 바탕으로 상생형 노사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선 적합도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홍준표 10%

4개 기관 여론조사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소폭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두자릿수로 급상승, 당내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향한 추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에게 조사한 결과,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5%, 윤 전 총장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두사람 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반면 홍 의원은 3%포인트 오르며 1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를 추격하는 이

낙연 전 대표는 1%포인트 상승한 10%로 홍 의원과 동률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였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2%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씩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2% 지지를 얻어 윤 전 총장(35%)을 제쳤다. 윤 전 총장은 가상 대결시 이 전 대표에게도 38%대 35%로 뒤처졌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3%포인트 내린 22%였고 홍 의원은 7%포인트 뛰며 19%를 기록, 격차가 3% 포인트로 좁혀졌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지지도가 37%대 21%로 그 격차가 커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대 23%로 2배 이상 차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 의원이 23%, 윤 전 총장이 5%였다.

진보진영 적합도는 이 지사 31%, 이 전 대표 16% 순이었다.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 지사 33%, 윤 전 총장 24%, 이 전 대표 7%, 홍 의원 5% 등 순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본궤도...이재명·이낙연 지지선언 봇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선언 경쟁에 불이 붙었다.

당내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성직자 100여명은 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책임자"라며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에는 사회복지단체 2022명이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뜻을 밝혔고, 지난달 31일에는 강원 여성 1000명이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전남 캠프에 몸 담은 강선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합류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세 과시에 집중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만 3~4개 단체의 지지 선언이

나온다. 밑바닥 민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재명은 '한다'는 기대감이 여러 단체의 지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격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각계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민주당 충북 광역·기초의원 74명, 충남 광역·기초의원 57명에 이어 부산 광역·기초의원 중 과반인 66명의 의원이 지지선언을 했다. 충청 여성·장애인 단체 1026명, 광주 예술인 290명도 가세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노동계 인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신복지노동포럼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는 "투표 시작과 함께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 그간 결정을 보류했던 단체들이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역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지지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